

## < 관심리포트 정리 >

만든 날짜: 2024-03-18 오전 5:34

수정한 날짜: 2024-03-18 오전 5:40

## < 관심리포트 정리 >

DI동일

모든 방향은 다시 위를 가리킨다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저점을 다진 2023년, 회복될 2024년

2023년 동사 실적은 매출액 6,829억원(-25.3% y-y), 영업이익 63억원(-85.9% y-y)으로 연간 영업이익 기준 최근 10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을 발표. 주요 사업인 섬유소재 사업과 알루미늄 사업 모두 부진하였으며, 지난해 지속된 원면 가격 하락 및 알루미늄 가격 하락, 글로벌 2차전지 수요 부진 등에 기인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확대되는 주주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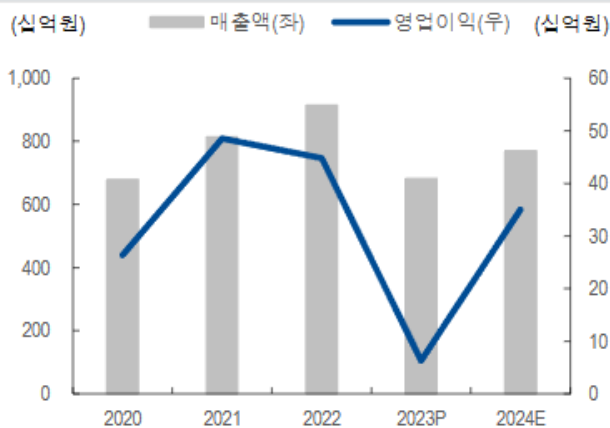
지속된 수익성 악화 추세는 최근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실적 턴어라운드 및 재성장기 진입 전망. 섬유 사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업계 내 구조조정이 지속되었으며 재고 감소 영향 및 글로벌 소비 회복에 따라 업황 개선 중. 알루미늄 사업 또한 원재료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2차전지 셀 출하량 또한 2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점차 회복하는 추세로 전환 전망

밸류업 프로그램 및 주주운동을 계기로 동사 가치 재평가 전망. 보유 부동산 가치 시가 반영 시 실제 동사 PBR은 0.4x 수준으로 추정. 대부분이 유휴부지임을 감안 시 자산재평가를 통한 가치 부각, 회계적 재무비율 개선 외에도 불용자산 매각을 통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현금활용능력 강화 가능. 22.9%에 달하는 자사주 또한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에 기여할 수 있음. 동사의 풍부한 자산은 단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잠재 가치 크다 판단

	2022	2023P	2024E	2025F
매출액	913.7	682.9	770.0	835.0
증감률	12.4	-25.3	12.8	8.4
영업이익	44.8	6.3	35.0	44.0
증감률	-7.9	-85.9	454.7	25.7
영업이익률	4.9	0.9	4.5	5.3
(지배지분)순이익	53.8	3.2	28.9	34.3
EPS	2,028	122	1,147	1,329
증감률	28.2	-94.0	837.9	15.9
PER	7.3	239.1	22.9	19.8
PBR	0.7	1.3	1.1	1.1
EV/EBITDA	9.2	39.6	16.2	13.5
ROE	9.4	0.5	4.7	5.4
부채비율	61.5	61.8	58.8	55.6
순차입금	176.3	165.5	119.9	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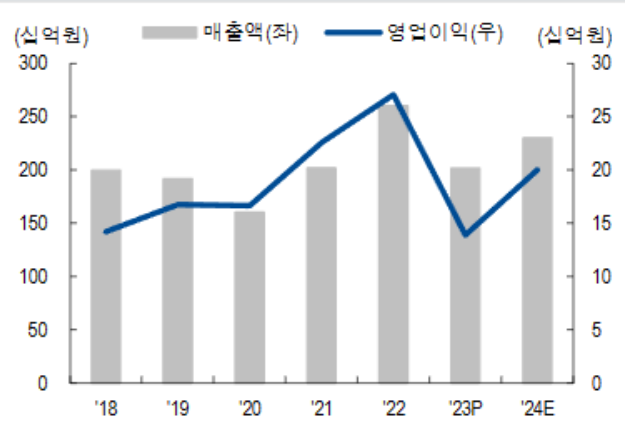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2.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DI동일,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3. 동일알루미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DI동일,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CJ

올리브영, 24년이 지배구조 변화의 원년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올리브영의 지속되는 성장과 핵심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기대

올리브영의 23년 매출액은 약 3.86조원(+39% YoY)로 추정되며 영업 이익률은 10.7% 수준의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24년도 또한 기존 점포의 내실 강화 및 수익성 확대, 온라인 비중 확대 및 해외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약 38%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제일제당을 필두로 핵심 자회사 대부분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업황 바닥 확인 혹은 체질 개선(ENM과 CGV)을 통한 수익성 제고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올리브영 2대주주 글렌우드 PE의 Exit 여부가 쟁점

시장의 관심은 올리브영의 2대주주 코리아에이치엔비 홀딩스(글렌우드 PE)의 Exit 방법으로 쏠린다. 글렌우드는 프리 IPO 당시 20년 1.8조원 밸류에 신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을 매입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만기가 5년인데 올해가 5년차에 접어든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은 올해 글렌우드 exit 여부와 그 방식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올리브영의 IPO가 철회된다고 가정하면 글렌우드의 exit 방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올리브영의 배당 가능 재원이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일부 자금을 통해 글렌우드의 지분 일부를 자사주 형태의 지분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월 올리브영 주총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주회사 내 Top pick 유지, 목표주가 1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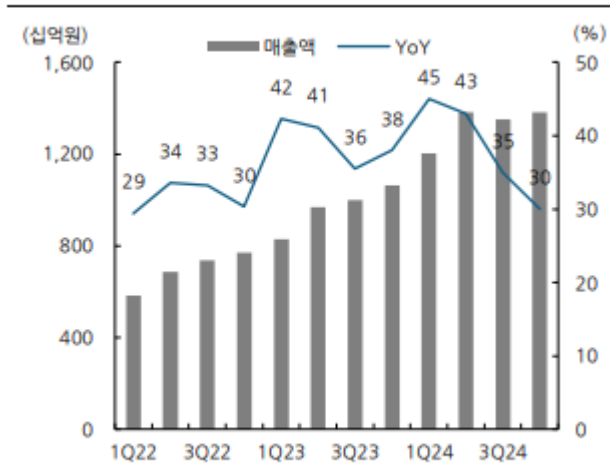
주요 투자 포인트는 1) 24년 제일제당을 필두로 핵심 자회사들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2) 올리브영의 지속되는 고성장과 높아지는 밸류, 3) 올리브영의 IPO보다는 100% 자회사화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사업 지주회사 형태로의 프리미엄 등이다. IPO 철회는 지주회사 특유의 중복상장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주회사 Top pick과 목표주가 140,000원을 유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0	2021	2022	2023P	2024F
매출액	31,999	34,484	40,925	41,353	44,977
영업이익	1,390	1,882	2,154	2,039	2,718
영업이익률(%)	4.3	5.5	5.3	4.9	6.0
세전이익	514	1,301	1,056	995	1,705
자배주주지분순이익	87	275	202	266	689
EPS(원)	2,522	8,910	6,367	9,202	24,859
증감률(%)	-71.1	253.3	-28.5	44.5	170.1
ROE(%)	1.9	5.7	3.9	5.0	12.1
PER(배)	36.5	9.4	13.2	10.4	3.9
PBR(배)	0.7	0.6	0.6	0.6	0.6
EV/EBITDA(배)	4.2	3.7	3.4	3.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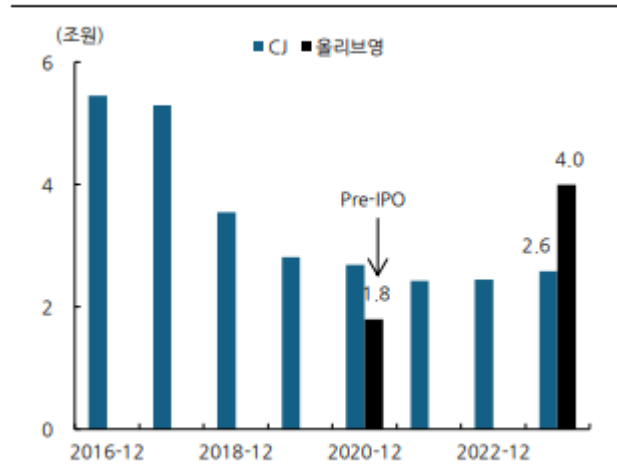
자료: CJ,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5 올리브영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CJ,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6 주 CJ와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지앤비에스 에코

가팔라지는 성장 곡선과 낮아진 Valuation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 필수가 되어가는 친환경 설비 전문 기업

친환경 설비 전문 기업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 처리설비 De-NoX & E.P시스템, 백연 제거장치, 파우더 트랩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다수 개발하여 판매 중

### 지속되는 R&D, 커지는 수주

동사 주력제품인 플라즈마 스크러버는 기존 Burn&Wet 방식 대비 가열온도가 높아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다양하며, 처리 용량 또한 높아 차세대 스크러버로 주목받는 중. 나아가 플라즈마와 파우더 포집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무폐수 스크러버를 개발하여 시장 침투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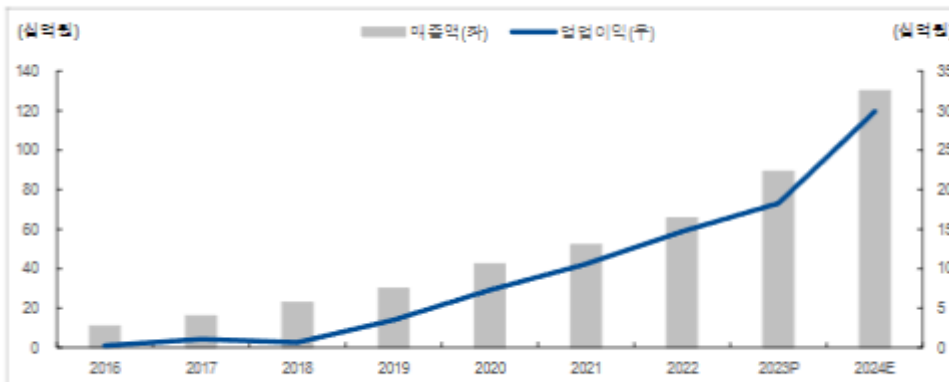
반도체 고객사들의 투자 재개로 신규 고객사 수주 및 기존 고객사 발주 확대가 전망되며, 인도 및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투자 또한 지속되며 올해 실적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 차세대 스크러버 제품으로 입지 확대와 더불어 수주 레퍼런스가 확대되며 신규 고객사 수주 및 수주 규모 또한 커지는 상황

2024E 매출액 1,300억원(+45.5% y-y), 영업이익 299억원(+63.5% y-y, 영업이익률 23.0%)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실적 경신 전망. 동사 Valuation은 2024E 기준 PER 7.3배 수준으로 성장성 대비 저평가로 판단

	2022	2023P	2024E	2025F
매출액	65.6	89.3	130.0	170.0
증감률	25.9	36.2	45.5	30.8
영업이익	14.7	18.3	29.9	40.0
증감률	38.5	24.3	63.5	33.6
영업이익률	22.4	20.5	23.0	23.5
(지배지분)순이익	14.8	17.6	23.8	31.5
EPS	509	588	790	1,045
증감률	17.8	15.5	34.5	32.3
PER	5.5	9.6	7.3	5.5
PBR	1.2	1.9	1.5	1.2
EV/EBITDA	4.8	7.8	4.5	2.9
ROE	23.0	21.7	23.3	24.3
부채비율	22.9	22.2	21.3	20.4
순차입금	-9.9	-20.3	-35.2	-56.2

단위: 십억원, %, 원, 배

### 자엔비에스 에코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자엔비에스 에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그림 1. 주요 연혁 및 고객사 현황

2013~2018년  
기계설비 고도화

- 2013 **빅삼순** 대표이사 취임
- **GnBS Engineering**으로 새로운 도약
- GS POWER **부천열병합발전소**
- 백인저감설비 설치
- 2014 **무태수 스크리버** 개발
- 중국 CSOT (TFT-LCD) Plasma 스크리버 수주
- 2015 중국 **COST** 플라스틱 스크리버 수주
- 세송 천연가스발전소 4 Cell 설치 수주
- 2016 **BOE(FPD) Plasma Wet** 스크리버 수주

2019~2022년  
성장 가속화

- 2018 SK-Hynix **무태수 스크리버** 납품 본격화
- 2019 SK-Hynix **공급 부분** 대상 수상
- 1천만 불 수출의 탑 달성
- 2020 **SMIC PW**수주 및 주공급업체 선정
- 공장 용적 (7,600 → 10,000m<sup>3</sup>)
- 환경 전문 공시업 면허 취득
- 중국내 solar 고객 점유율 80% 이상
- 2021 Intel **무태수 스크리버 (WFPS)** 수주
- 2021 **코스닥 상장**
- 2022 3천만 불 수출의 탑 달성

2023년~  
사업 영역 확대

- 2023 **GnBS eco**로 시범 변경 및 친환경 성장 동력 확대
- 철수 Service Hub Center 준공 / 23년 8월
- 인도 태양광 **스크리버** 수주 (주요 고객사 TATA,WAAREEADANI 등)
- 에너지 멀티 **플렉스 1호**직 건설, 2호직 계약
- **5천만 불 수출의 탑 달성**
- 2024 **Infinion Villach Plasma** 평가 및 Qualified (13개월 가동 중)
- 양천 가속사 준공 / 24년 2월
- 미천 Service Hub Center 착공 (24년 7월 완공 예정)
- X FAB WCVD Plasma Solution 평가 완료 및 Qualified
- 미주 IL, GE, NIX 등 평가 협의 중
- 아시아 Skyworks, VIS, ST Micronics 평가 협의 중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백열 제거장치
해외	SMIC, intel, 长江存储, JHECC, HANWHA, GINSENG, CHINA STAR, ASMIC	BOE, ROYOLE, GYO, TRULYS, CSOT	Jinko, Risen, Jclios, JA SOLAR, LONGAR, GAL, HANERGY, SUNING, Alkoscob, SF-PV, adani, WAAREE, TATA	三安光电, Cree	
국내	SK hynix, onsemi, HANWHA, JUSUNG, MagnaChip	SAMSUNG DISPLAY	Hanwha, HYUNDAI ENERGY SOLUTIONS	SAMSUNG, VIOSYS, Mcel	KCEN, GS 파워, KOMPO, 한국지엠에너지

자료: 자엔비에스 에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8년 이후 사업 다각화하며 높은 성장세 시현

NVH코리아는 1984년 일양산업으로 설립되어 2001년 NVH코리아로 사명을 변경, 201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전에는 국내에서 GH신소재, 삼흥 등을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준비했고, 해외에서는 중국(양주, 강소), 인도(첸나이), 러시아 등에 진출했다. 상장 이후에는 2018~2019년 해외에 체코, 폴란드, 인도(아나타푸르)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8년 케이엔솔, 2019년 삼현BnE를 인수했고, 2020년 울산에 전동화공장을 설립, 2021년에는 3E 테크, 2022년에는 미국의 전동화 사출품 수주를 받아 NVH USA를 설립했다.

사업다각화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는 자동차부품 이외 환경에너지 기여도가 높아졌는데 환경에너지의 매출비중은 2018년 11%에서 2022년 32%를 기록했다. 환경에너지가 추가되면서 연결 매출액도 2018년 6,220억원에서 2022년 1조2,3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향후에는 전동화공장의 확장, NVH USA 및 NVH 조지아를 통한 글로벌 OE납품 다각화, 3E 테크를 통한 신사업 추가 등으로 매출 성장이 한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영업이익률 4.6%로 개선추세 이어져

2023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1.37조원(+11.5% yoy), 영업이익 629억원(+18.4% yoy), 영업이익률 4.6%(+0.3%p yoy), 당기순이익 106억원(+39.1% yoy)을 기록했다. 자동차사업부에서 고객사 생산증가(+10%) 및 전동화공장 용역매출 증가, 환경에너지사업부에서 미국법인 수주 확대로 매출 증가와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주당배당금도 150원으로 확대해 전일 증가기준 시가배당률은 5.9% 수준이다.

2023년 4분기만 보면 매출액 3,831억원(+14.9% yoy), 영업이익 223억원(+40.5% yoy), 영업이익률 5.8%(+1.0%p yoy), 당기순이익 200억원(흑자전환 yoy)을 기록했다. 분기 중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통상 4분기 금형에 대한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가운데 전동화공장 용역매출 단가 정산 등의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도 실적 개선 기대

2024년에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에너지 사업부에서 케이엔솔의 미국 수주 증가분이 매출로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고, 자동차 사업부에서는 러시아법인 실적 개선과 하반기 미국과 인도법인 매출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업확장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2023년말 부채비율이 264%로 소폭 높아졌으나 해외 손상차손 개선으로 영업외부문 손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연결실적 기준 Trailing PER은 10.1배 수준이고, 2024년은 실적개선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십억원배)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622	826	959	1,069	1,230
영업이익	3	27	28	43	53
세전이익	-11	19	-6	28	15
지배주주순이익	-17	10	-14	15	-1
EPS(원)	-555	313	-441	446	-30
증가율(%)	-435.8	-156.5	-240.6	-201.2	-106.8
영업이익률(%)	0.5	3.3	2.9	4.0	4.3
순이익률(%)	-2.6	1.5	-1.3	1.9	0.7
ROE(%)	-12.1	7.1	-9.9	10.1	-0.6
PER	-3.6	8.2	-8.1	8.9	-102.8
PBR	0.5	0.6	0.8	0.9	0.7
EV/EBITDA	12.5	7.2	7.9	6.9	5.3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CJ제일제당

긍정적 시각 유지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1Q24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대비 각각 2.1%, 23.6% 개선 전망

바이오와 F&C 부문 회복 지연을 반영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7조 2,192억원 / 3,125억원)를 기존 대비 각각 0.3%, 6.0% 하향함. 컨센서스(7조 2,018억원 / 3,354억원) 대비 매출액은 부합, 영업이익은 하회할 전망

부문별로, 식품 매출은 2조 8,903억원(+4.7% yoy), 영업이익은 1,590억원(+18.6% yoy)으로 전망됨.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신제품 판매가 늘고, 설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또 원당 이외의 투입 원가 하락 기초가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될 전망. 해외는 중국이 여전히 부진하겠으나, 일본에서 회복 국면에 돌입했고, 미주와 유럽 지역 매출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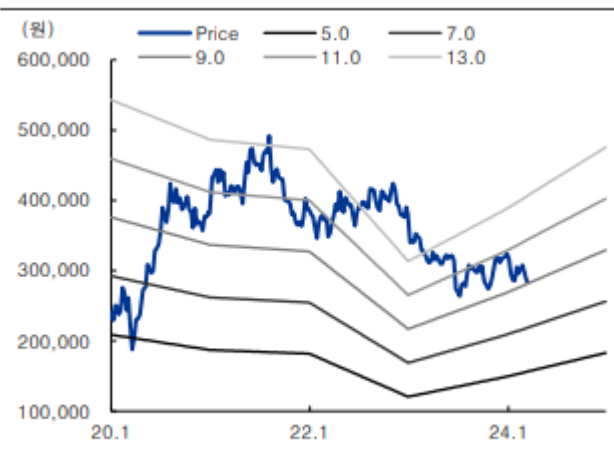
바이오(FNT 포함)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저효과로 각각 3.1%(yoy), 7.0%(yoy) 개선될 전망. 트립토판과 발린, 알지닌 등 스페셜티 판매는 양호한 반면, 라이신을 비롯한 대형 아미노산 판매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또 셀렉타 주요 제품 평가 하락세 및 높은 시장 경쟁 강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변수가 많은 라이신 매출 비중(18%)을 축소하는 한편, 트립토판(16%)과 스페셜티(19%)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바이오 부문의 실적 안정성은 점차 높아질 전망. F&C 부문은 평가 낮은 수준이지만 원가를 개선되며 영업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베이스 부담이 작아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주가는 부진한 모습. 이는 1)4Q23 실적 시즌 이후 음식료 업종 전반의 기대감 하락, 2)시장 상승에 따른 음식료 업종(내수 방어주) 매력 하락, 3)원당 가격 반등 부담, 4)바이오와 F&C 부문 회복에 대한 의구심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현 시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길게 보면 해외 매출 비중(약 60%)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고, 대체 식품 트렌드 대응에 적극적이며, 밸류에이션 부담(올해 예상 PER: 9.7x / PBR:0.7x)이 낮아지고 있어 기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함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26,289	30,080	29,023	30,453	32,544
영업이익	1,524	1,665	1,292	1,545	1,794
세전이익	1,218	1,246	731	913	1,118
지배주주순이익	613	596	395	489	599
EPS(원)	37,413	36,378	24,106	29,877	36,578
증가율(%)	-10.6	-2.8	-33.7	23.9	22.4
영업이익률(%)	5.8	5.5	4.5	5.1	5.5
순이익률(%)	3.4	2.7	1.9	2.2	2.5
ROE(%)	10.8	9.3	5.9	7.1	8.3
PER	10.4	10.5	13.4	9.5	7.7
PBR	1.0	0.9	0.8	0.7	0.6
EV/EBITDA	6.9	6.6	6.9	6.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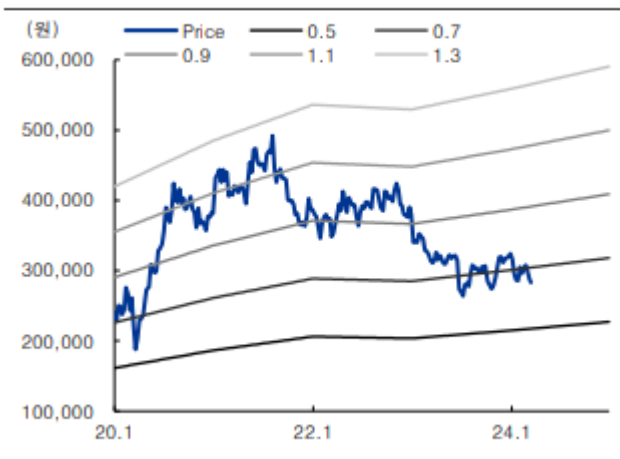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CJ제일제당 Fwd PER 밴드차트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CJ제일제당 Fwd PBR 밴드차트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나이트크로우, 출발이 좋다

[\[출처\]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

나이트크로우의 양호한 초기 성과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70,000원에서 85,000원으로 상향. 3월 12일 출시한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버전이 양호한 초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매출 추정치 및 valuation(PER 22배 적용)을 상향

블록체인 버전으로 출시한 나이트크로우(글로벌)가 양호한 초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3월 13일 20시 기준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애플 매출 순위 2위를 기록 중이고 전세계 10위권 내 13개 국가, 100위권 내 44개 국가 기록 중. 서버대수가 24개에서 51개로 하루 만에 증가하였고, 이를 감안하면 동시접속자수도 25만명은 충분히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 현재 추세면 미르4의 최고 서버대수 140개도 넘어설 수 있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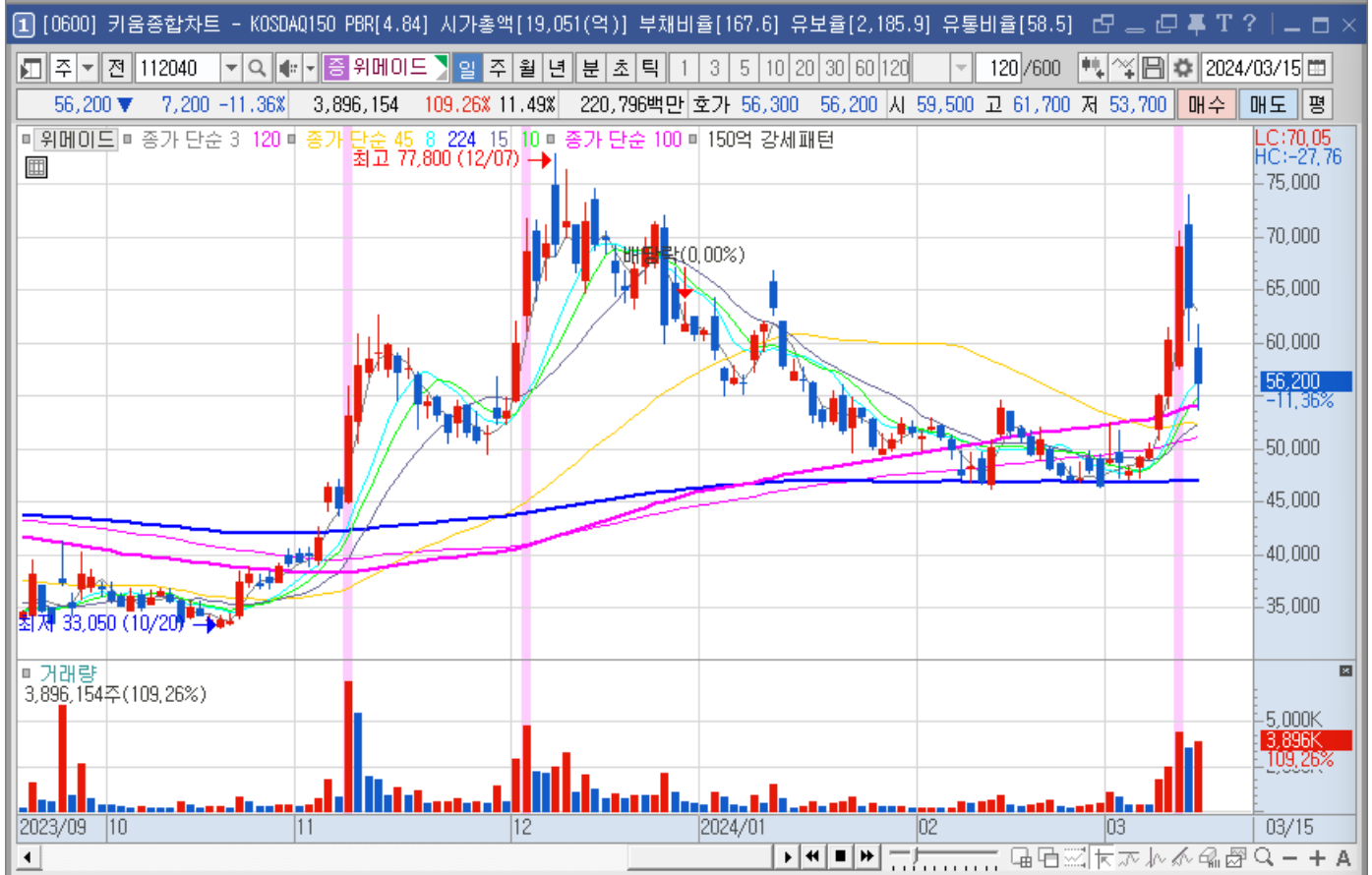
나이트크로우에는 SSS Supporting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3월 13일 18시 기준 67,123위믹스(212,766달러, 약 2.8억원)가 적립됨. SSS Supporting 시스템은 유저가 구입한 유료 아이템에 일정 비율을 씨드로 배정해 스트리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임. 정확한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0%를 가정하면 출시초기 일매출은 2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됨. 이를 감안하여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의 초기 일평균 매출액을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머지 신작들도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나이트크로우 이외에도 3월 '판타스틱4베이스볼', 2분기 '미르4(중국)', 3분기 '레전드오브이미르', 4분기 '미르M(중국)'까지 다수의 신규 기대작을 통해 실적 회복 기대. 1분기에는 나이트크로우 매출 기여가 크지 않고, 초기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영업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1,080억원으로 turnaround 예상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463.5	607.2	1,078	1,100
증감률	38.4	31.0	77.5	2.0
영업이익	-84.9	-112.6	108.0	150.1
증감률	-187	32.6	-196	39.0
영업이익률	-18.3	-18.5	10.0	13.6
(지배지분)순이익	-185.4	-205.9	130.2	168.3
EPS	-5,510	-6,093	3,842	4,966
증감률	-159.8	10.6	-163.1	29.3
PER	N/A	N/A	18.0	13.9
PBR	2.8	8.0	6.2	4.3
EV/EBITDA	N/A	-22.5	15.3	10.7
ROE	-37.1	-64.6	40.8	36.7
부채비율	167.6	251.4	252.2	199.1
순차입금	-171.9	-190.5	-426.2	-560.5

단위: 십억원, %, 원, 배



###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 분기 대비 78.0% 증가 전망

금호석유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5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8.0% 증가하며, 타 화학 업체 대비 견고한 수익성을 기록할 전망이다. 합성수지/페놀유도체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 분기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천연고무/부타디엔 가격 상승 및 전방 타이어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 발생으로 SBR/BR 등 합성고무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전 분기 발생한 에너지 등의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측면의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NB Latex의 경우 전방의 공급 과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재작년부터 이어진 장갑업체들의 재고조정 및 생산설비 합리화 등으로 인한 소폭 업황 회복 및 천연고무 가격 반등으로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세에 있다.

최근 부타디엔 가격 상승으로 2분기에는 일부 마진의 훼손 가능성도 존재하나, 동사는 자체 부타디엔 플랜트 가동률 상승, 부타디엔 유도체 판가 인상 및 계획된 정기보수 등으로 인한 구입 물량 조정 등으로 그 영향은 헤지될 것으로 보인다.

### 글리세린 ECH 플랜트 건설로 에폭시수지 경쟁력 강화

에폭시수지는 올해 3월부터 미국/유럽 등의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가격 또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고점 대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동사는 페놀 체인 통합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에폭시수지의 추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CIM과 말레이시아에서 글리세린 공법 ECH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ECH 생산능력은 10만톤이며, 장기적으로 20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말레이시아 에폭시수지 생산능력 확보도 검토 중에 있다.

### 적극적 기업가치 개선 추진

동사는 보유 자사주의 50%를 2024~2026년 중 소각하고, 추가적으로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계획이다. 주식수 감소로 기업가치 개선이 예상된다.

(단위:십억원.배)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8,462	7,976	6,322	6,883	7,446
영업이익	2,407	1,148	359	368	461
세전이익	2,618	1,252	486	520	642
지배주주순이익	1,965	1,025	436	445	546
EPS(원)	58,694	31,017	13,544	14,417	17,779
증가율(%)	237.2	-47.2	-56.3	6.4	23.3
영업이익률(%)	28.4	14.4	5.7	5.3	6.2
순이익률(%)	23.2	12.9	6.9	6.5	7.3
ROE(%)	47.8	19.1	7.6	7.4	8.5
PER	2.8	4.1	9.8	9.5	7.7
PBR	1.1	0.7	0.7	0.7	0.6
EV/EBITDA	1.8	2.6	5.9	5.7	4.5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